“불갑산” vs “모악산”…영광군-함평군 명칭 갈등

함평군, 전남도에 불갑산 도립공원 이름 ‘모악산’ 정정 요청

영광군 “국가 공인 자료에 별개의 산으로 규정…변경 불가”

지난 2월부터 벌어진 ‘불갑산·모악산 명칭 논란’ <2월 2일자 광주일보 2면>이 지역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함평군 등이 최근 전남도에 불갑산 도립공원의 산 이름을 옛 명칭인 ‘모악산’으로 정정해 달라며 지명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자, 영광군도 이에 맞서 전남도에 지명 변경 ‘불가’ 의견을 전달하면서다.

전남도는 지난 2일 함평군으로부터 불갑산에 대한 지명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모정환(함평) 전남도의원의 발언 이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모 의원과 함평군은 현 불갑산(516m)은 원래 모악산으로 불리던 산이었으나, 1900년대 들어 모종의 이유로 갑작스레 이름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2003년 영광군이 국토정보지리원에 불갑산 지명을 등록 요청하면서 도립공원 명칭까지 불갑산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1530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함평·영광 어디에도 불갑산이라는 명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악산이라는 이름만 쓰였다. 또 1861년 만들어진 ‘대동여지도’에도 불갑산은 전혀 다른 위치로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무등산 증심사’, ‘조계산 송광사’ 등 산 이름과 절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가 없는데, 불갑사가 있는 산 이름이 불갑산일수가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불갑사 홈페이지와 인근 주민들도 불갑사 위치를 모악산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모 의원은 “수천년 역사를 가진 모악산의 이름이 ‘창씨개명’하듯 불갑산으로 바뀌어 버려 군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모악산(불갑산)이 최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만큼 더 많은 혼란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명칭을 재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광군은 지난 8일 전남도에 지명 변경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옛 국가 공인 자료에서 불갑산과 모악산을 별개의 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칭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영광군은 단기 4292년(서기 1959년)에 작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지명조사철을 근거로 내세웠다. 영광군·함평군에서 각각 제작한 지명조사철이 지목하는 불갑산의 경·위도 좌표가 126-34-00으로 일치한다는 것이다. 반면 함평군 지명조사철에서 표기한 모악산의 경·위도는 126-32-00으로 아예 다른 곳이라는 주장이다.

영광군은 또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한국지명유래집 2010 전라·제주편’에서 불갑산을 ‘함평군 해보면과 영광군 불갑면 묘량면 경계에 있는 산’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모악산은 불갑산 다음으로 높은 산봉우리(고도 339m)로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영광군은 ‘모악산 도립공원’이라는 명칭은 이미 지난 1971년 전북 김제시 일대에서 지정·관리 중인 도립공원에 쓰이고 있으므로 명칭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나아가 영광군은 지난달 30일 도립공원 지정 4년 만에 ‘불갑산 도립공원’ 문구를 새긴 표지석을 설치하고 지명 변경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길게는 수 개월에 걸쳐 양 측 의견을 모으고 검토한 뒤, 전남도 지명위원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전남도 지명위원회 결과를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전달하고, 국가 지명위원회까지 개최돼야 지명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단순히 이름 하나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칫 지역 간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며 “양 측 의견이 충분히 모일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지명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서 진드기 감염 2명 사망

보건당국 “야외활동 주의를”

전남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질환으로 올해 2명이 숨져 보건당국이 야외활동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4월 해남의 80대 여성에 이어 이달 3일 순천의 80대 여성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질환으로 숨졌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고열·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구토·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나타난다.

매년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치명률(18.7%)에 비해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제3급 법정감염병이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4명의 환자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진드기는 수풀이 우거진 곳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또는 동물을 물어 흡혈한다.

등산, 산나물 채취, 텃밭작업, 농작업, 산책 등 야외활동 시 긴소매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외출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를 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경찰 없는 섬 ‘치안드론’ 뜬다

전남자치경찰위, 고흥서 개발 실증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섬 지역 주민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치안 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섬 지역 치안 드론 및 운용 체계 개발’을 위한 제4차 실증을 최근 고흥 녹동항과 고흥군청 내부영상망(CCTV) 관제센터에서 진행했다.

이는 특수 드론에 적외선 카메라, 탐조등, 경광등, 스피커 등 각종 장비를 장착한 상태에서 장거리 비행(2시간·10km 이상)이 가능한 기체를 개발하고, 이동식 관제 차량과 내부영상망 관제센터에서 조종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2022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주민공감 현장문제 해결사업’ 중 하나로 선정돼 고흥 상화도·하화도·득량도에서 추진 중이며 오는 7월 실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인력 여건상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도 주민 요청이 있으면 안전 예방 서비스, 재난 감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4차 실증에서는 개발 중인 치안 드론의 성능을 다시 한번 검증했으며, 각종 임무장비 및 내부영상망 관제센터와의 연동 시스템 고도화에 집중했다.

특히 고흥 상화도·하화도·득량도 이장 등 지역 주민과, 순천대 산학협력단, 대한항공, 전남테크노파크 등 연구진,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고흥군, 고흥경찰서가 참여하는 ‘스스로 해결단’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만형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하반기 중 고흥군, 전남경찰청, 대한항공과의 협업을 통해 ‘(가칭) 섬지역 드론 순찰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갑자기 쏟아진 비 12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자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co.kr

광주 대면 수업 재개에 학교 폭력 증가세

코로나 엔데믹을 계기로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광주지역에서 학교 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 접수된 폭력 건수는 전년보다 31% 늘어난 221건으로 나타났다.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도 전년 대비 110회 더 열려 66%나 증가했다.

특히 신학기인 3월에만 접수된 학교 폭력 건수는 2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건보다 107%나 늘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폭력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관계회복 지원팀에 학교 전담 경찰과 전문가 등 외부 인사 30여명으로 관계회복 조정팀을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면수업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토론회와 교감 연수 등을 통해 지속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올 ‘문화재 야행’ 약자와의 동행”

광주 동구 ‘배리어 프리’ 진행

16~17일 5·18민주광장 등서

광주시 동구는 올해 ‘광주문화재야행’ 행사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참가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행사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광주문화재야행은 오는 16~17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등지에서 열리며, ‘돌의 안부’를 주제로 삼고 5·18민주광장 ‘재명석 등’, 광주읍성유허 성곽에 쓰인 돌, 서석초 붉은 벽돌 등을 중심으로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약자도 물리·심리적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배리어 프리’ 정책을 적용해 개막 공연에 휠체어 전용 좌석을 설치하고 행사장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오는 16일 서석초 일대에서 돌 놀이터·야광 놀이터·서석 사진관 등 프로그램을 즐기는 ‘붉은벽돌학교’ 행사는 장애아동에게만 우선 개방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가 편히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